

韓國 新宗教 儀禮服飾 考察(I)

원 광 대 학 교 의 상 학 과
전 임 강 사 임 상 임

目 次

I. 序 論	3. 大宗教의 儀禮服飾
II. 新宗教의 儀禮服飾 考察	4. 圓佛教의 儀禮服飾
1. 水雲教의 儀禮服飾	III. 結 論
2. 彌勒佛教의 儀禮服飾	參考文獻

I. 序 論

세계 도처에서 새로운 宗教가 창립·소멸·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860年 水雲 崔濟愚에 의해 東學이 창교된 이래 500여 개가 넘은 새로운 종교들이 출현과 소멸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 명칭은 크게 類似宗教, 新興宗教 및 新宗教로 불리우고 있다.

類似宗教라는 표현은 日帝時代에 우리의 민족정신의 抹殺을 목적으로 일본인에 의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고,¹⁾ 新興宗教라는 표현은 1971年 문광부의 종교 조사보고서에서 類似宗教라는 말과 구별하여 사용되기 시작한 후,²⁾ 既成宗教에 대하여 관세 이후 한국에서 새로 일어난 모든 종료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新宗教라는 말은 1980年代에 대두되기 시작한 표현으로, 近世 이후 한국에서 새로 창립된 종교 중에서 대체로 교리나 사상, 제도 등이 전통한 종교에 대한 총칭이다.

韓國의 新宗教는 韓國宗教思想에 큰 획을 그으며 韓國近代宗教思想이라는 맥을 형성하여 제반 문화

에 영향을 끼쳐오고 있다.³⁾

이에 本論文에서는 종교적 의미의 전달이 가장 可視的으로 일어나는 新宗教 儀禮服飾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여, 의례복식을 통한 新宗教思想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의 近代民族思想 및 精神文化를 꼭넓게 이해하고자 한다.

아울러 복식이 갖는 특수성으로 해서 복식에 대한 연구는 實物 연구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서, 창립·소멸의 변화가 많은 新宗教의 의례복식에 대하여 실물이 존재할 때 조사·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研究의範圍는 柳炳德⁴⁾·金洪喆⁵⁾의 분류에 따라 우리나라의 新興宗教 中 水雲의 天道教, 甑山의 甑山教, 羅喆의 大宗教, 少太山의 圓佛教, 金一夫의 正易思想에 근거한 종교등의 5大 종교를 新宗教의 基本類型으로 하여 의례복식이 制度化되어 있는 水雲系의 水雲教와 甑山系의 彌勒佛教, 大宗教, 圓佛教 등에 대한 의례복식에 대하여 형태, 색, 소재 등을 정리·고찰하고자 한다.

研究의 方法은 우리나라의 新興宗教에 대한 文獻과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各宗團의 實務者와

1) 金洪喆, 『韓國新宗教思想의 研究』, 集文堂, 1989, 10-11쪽

2) 文化公報部(종무과)의 제정 후원하에 1969年 4月 29日 新興 및 類似宗教調査研究會를 조직하여同年 7月-9月에 걸쳐 非法人(동록) 宗教集團을 實態調査하였다.

3. 金洪喆, 앞의 책, 199-216쪽

4. 柳炳德,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종교학회, 1985, 428쪽

5) 金洪喆, 앞의 책, 14쪽

의 面談과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新宗教를 파악한 뒤 현지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現行 의례복식에 대한 實測·撮影은 물론 口傳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의례복식에 관한 자료를 얻어 分析·整理하고자 한다.

II. 新宗教의 儀禮服飾 考察

1. 水雲教의 儀禮服飾

1) 水雲教의 概觀

水雲教⁶⁾는 東學의 始祖 崔濟愚가 出龍子로 再爲出世한 후 1923년에 창교한 教이며, 신앙의 대상은 하늘님, 부처님을 비롯하여 檀君, 孔子, 老子 등의 諸神을 숭배하고, 儒佛仙 원리를 合一하여 無極大道로서 地上天國의 실현을 目的으로 한다.⁷⁾

水雲教에서는 禮拜儀式을 '致誠'이라고 부른다. 致誠이 奉行되는 가장 중요한 儀式日은 교주성탄절 및 개교기념일 등 2대 경축일이다. 儀式에 참여하는 教人은 禮冠禮服을 입도록 되어 있고, 儀式에 쓰이는 기구는 木鐸, 鐘, 搖鈴, 鼓 등을 쓰는데 이것은 불교와 거의 같다. 절하는 方式 역시 불교적 요소가 대단히 많이 가미되어 있다.⁸⁾

2) 儀禮服飾의 細部的 考察

水雲教의 『教憲』⁹⁾에 禮服을 '冠服'이라 하여 仙冠 仙服, 道冠道服, 佛帽冠, 天衣, 法帶, 繡鞋子, 六環杖, 子牌, 鶴票, 肩章 등이 있는 바, 『교헌』에 기록된 의례복식과 現行 의례복식의 실태를 중심으로 形態, 色, 素材 등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① 仙冠 仙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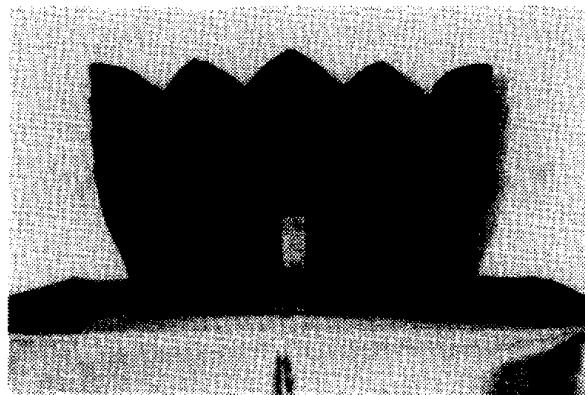
仙冠 仙服은 仙冠과 仙服, 帶로 이루어지며, 儀禮時는 물론 布教할 때, 一切 任員 및 職員이 教區內에서 所管事務를 수행하거나 入叅할 때에는 필히 仙冠 仙服을 정재하여야 하고¹⁰⁾男女와 道位의 上下에 관계없이 모든 教人이 착용한다.

가. 仙冠

仙冠은 道位를 받은 교인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禮冠으로, 蓮花冠이라고도 하며 男子冠은 開花形 <圖 1>이고 女子冠은 半開形이며 冠後에 黑色緞(불모댕기=廣八寸 長二尺)을 단다.¹¹⁾

『教憲』에 의하면 仙冠에는 單層冠, 二層冠, 三層冠, 四層冠이 있으며 單層, 二層, 三層冠은 黑色이고 四層冠은 紫色이다. 黑色單層冠은 가장 道位가 낮은 貞·尊·順女가 쓰고 中間道位인 道師·和夫人은 黑色二層仙冠을 쓰고 中上의 道位인 廣主·烈夫人은 黑色三層冠을 쓰고 下位인 子位, 漢貞夫人以上의 道位를 받은 者는 紫色四層冠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에는 道位에 관계없이 四層仙冠만이 착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매년 또는 2~3년 간격으로 道位가 승급되므로 그에 따라 禮冠禮服을 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최고의 仙冠인 四層冠만을 미리 만들어 착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圖 1> 水雲教 男子仙冠

(수운교 총무원장 梁元胤 소장,

1991. 1 조사)

<圖 1>은 수운교에서 현재 착용하고 있는 紫色四層仙冠이다. 이 관은 開花形이고 紫色四層冠이므로, 『教憲』에 의하면 子位 以上의 남자가 쓸 수 있는 冠이다. <圖 1>을 살펴보면 전후좌우 8개의 꽃잎이 4층으로 중첩되어 모두 32개의 연꽃잎이 활짝 편 연꽃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위가 程子冠처

6) 現 本部는 대전시 유성구 충북동 403번지

7) 水雲教 本部, 『教憲』總則, 1982, 5쪽

8) 문광부, 『韓國 新興類似宗教 實態調查研究報告書』『수운교편』, 1971, 274쪽

9) 创教祖가 水雲教를 창립하고 戒行과 運營規範을 教典에 明示한 것으로 그간 수차의 改正을 거쳐 水雲降生 161年(1988年)陰 4月 17일에 개정 공포된 教運營의 大義憲典

10) 水雲教 本部, 貞의 책, 第六章 任員 第五條

11) 水雲教 本部, 貞의 책, 第四章 道位와 冠服 第三十一條

립 터지 있고 앞 중심에는 노란바탕에 검정글씨로 '佛天心'이라고 쓰여 있다. 이 말은 부처님과 하늘님의 마음을 갖자는 의미를 지니나, 教憲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仙冠의 색은 자색이라고 하나 고동색에 가까웠고 裏面의 색은 흥색이다.

한편 水雲教에서 仙冠을 蓮花冠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그 형태가 연꽃을 본따 만든데서이며, 형태를 연화관으로 한 것은 연꽃은 진흙속에서도 항상 깨끗하여 '佛心이 밝게 비친다'는 연꽃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 때문인 것 같다.

또한 仙冠에는 層이 있어 신앙의 경력을 표시하며 道位를 나타내고 있는 바, 仙冠의 層은 조선시대에 유생들 사이에서 품계에 따라 충수는 달리 했으나 예의 근본으로서 널리 착용되던 程子冠의 습용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仙冠의 名稱으로 하여 道教를 상징하고, 연꽃을 본따 만든 형태로 佛教를 상징하며, 冠은 禮의 근본이라는 의미에서 儒教를 상징하도록 하여 冠은 儒佛仙 三教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나. 仙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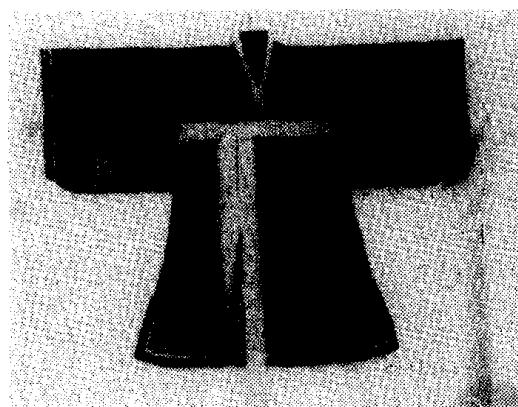
仙冠에 仙服을 착용하며, 仙服에는 帶를 땐다.

『教憲』에서 仙服에 대하여 "服地色은 灰色이며 것은 周衣式이고 무는 左四右四이고 셀은 左二右二이며 띠는 子位까지 紅色이고 鶴仙君 以上은 黃色을 띤다. 但, 夫人の 띠는 緑色이다. 남녀 구분없이 뒤 중앙에 음字를 붙인다. 一端은 黑色一線, 二端은 上自下黑二線, 三端은 上白中紅下黑三線, 四端은 上에서 白紅黃黑四線, 但, 夫人은 四端에서 色線이 上으로부터 緑·黃·紅·黑이 男子 仙服과 相異하다"¹²⁾

위의 記述에 따르면 仙服은 道位에 따라 帶의 색이 다르며, 男女에 있어서도 带의 색이 다를 뿐만 아니라, 仙服의 端에는 線을 두르며, 貞·尊·順女는 黑色單線의 仙服을 입고 道師·和夫人은 白紅二線을 입고 廣主는 白紅黑三線이며 그에 상응하는 烈夫人은 黃紅黑의 三線을 입고 子位 以上은 白紅黃黑의 四線 仙服을 입고, 여자의 최고 道位인 漢貞夫人은 緑黃紅黑의 四線 仙服을 착용하여 冠의 層과 함께 道位를 나타내는데 仙冠의 層과 仙服의 線은

그 數가 같아야 만 하는 것을 뜻한다.例전대, 單層 仙冠을 쓰는 者는 單線의 仙服을 입어야 하고 二層 仙冠을 쓰는 者는 二線의 仙服을 입고 三層 仙冠을 쓰는 者는 三線의 仙服을 입고 四層 仙冠을 쓰는 者는 四線의 仙服을 입는다. 그러나 현재에는 仙服의 경우도 仙冠처럼 四色四線의 仙服만이 착용되고 있다.

〈圖 2〉는 현재 착용되고 있는 남자 선복이다.



〈圖 2〉 水雲教 仙服

(수운교 총무원장 梁元胤 소장,
1991. 1 조사)

여기에서 보면 것은 周衣式이라 하여 領은 直領에 右衽이며 廣袖에 직선배래에서 소매끝을 약간 둉을린 두리소매¹³⁾이다. 무는 앞뒤 각각 4개씩 모두 8개가 있고 셀은 좌우 각각 2개씩 4개가 있다. 옆선은 밑단에서부터 조금 절개되어 있다. 그러나 여자 선복의 경우는 뒷중심이 끝까지 박혀있어 남자의 선복과 다르다. 또한 袖口와 端에 四線이 둘러 있으며, 袖口의 線은 소매 안쪽으로부터 袖口를 向해 白·紅·黃·黑의 四線이 둘러 있고, 襪에서부터 裙를 지나 옆트임, 뒤티임의 裙에 걸쳐 袖口와 같은 색의 四線이 있어 領, 袖口, 襪, 裙 등 四周에 線이 있는 鶴筆衣¹⁴⁾와 비슷하다.

이상으로 볼 때 仙服 역시 그 名稱은 道教를 상징하며, 形態는 周衣와 鶴筆衣를 본따 儒教를, 色은 灰色을 사용하여 佛教를 상징하나 仙服 자체가 儒佛仙 三教合一을 표현하고 있다.

12) 水雲教 本部, 앞의 책, 第四章 道位와 冠服 第三十一條

13) 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 一潮閣, 1986, 217쪽

14) 任榮子, "한국불교복식에 관한 연구", 韓國美術學회지, 1980, 197쪽

다. 帶

仙服에는 帶를 매며, 띠의 뒷 중심에는 음字를 단다. 帶의 色은 紅色·黃色·綠色이 있으며, 男子의 제일 낮은 道位인 員에서부터 11道位인 子位까지는 紅色이며 鶴仙君과 凤靈君은 黃色帶이다. 여자는 도위에 구별없이 모두 綠色帶를 맨다.

② 道冠 道服

道冠 道服은 道冠과 道服으로 이루어지며, 儀禮時에만 착용하여 大禮服의 성격을 지니고, 현재 子位以上인 者만이 착용한다.

가. 道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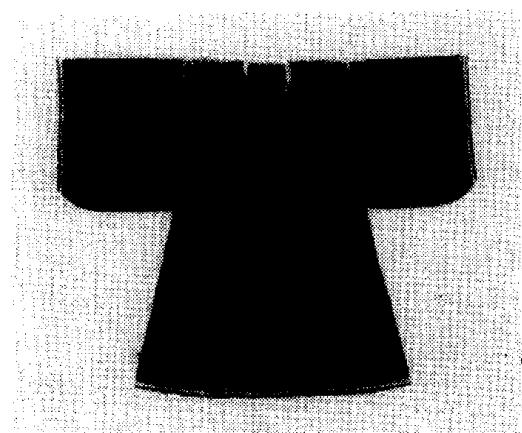
『教憲』에는 “道冠은 子位以上 착용하되 仙服과 혼용하지 않으며, 그 모양은 四層蓮花冠에 前後五個의 金色星을 繡놓고 層마다 金色線을 두른다.”¹⁵⁾라고 하고 있으나 現行 의례복식에서는 道冠을 쓰지 않고 있으며, 道冠대신에 佛帽冠을 쓰고 있다.

나. 道服

道服은 道冠과 함께 착용하는 禮服으로 子位·漢貞夫人 以上이 입는다.

道服의 色은 紫黃色이고 깃은 團領으로 끝에 단추를 끼우고 전체모양은 仙服과 同一하되 좌우 소매진동에 걸쳐서 부터 紅·綠·黃·黑의 四色線을 두르며 동일한 四色線으로 端線을 두른다.¹⁶⁾

〈圖 3〉은 현재 착용되고 있는 道服이다. 그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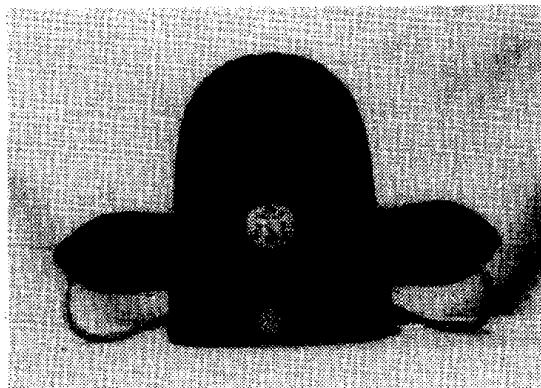
〈圖 3〉水雲教 道服

(수운교 총무원장 梁元胤 소장,
1991. 1 조사)

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仙服과 같으며, 다만 깃이 團領으로 되어 있고, 仙服과는 달리 좌우 소매진동 부분에도 紅·綠·黃·黑의 四色線을 두른다. 이 道服에는 어깨에 '佛天功德法師'라고 쓴 肩章이 붙어 있어 凤靈君大人의 道服임을 알 수 있다. 이 道服은 紫黃色(수운교에서는 고동색이라 부르기도 함)이며 合成纖維를 사용하여 훌옷으로 만들어져 있다.

③ 佛帽冠

『教憲』에 佛帽冠은 그 모양이 紗帽와 같고 色은 고동색이고 前後에 음字를 붙이며 그 밑에 黃色의 繩을 두르고 裝當과 後端 사이에 黃色繩으로 華直半圓形을 둘러 繩과 繩에 付着連結하고 後面中央에 배듭하여 左右로 뽕과 병행하게 線形을 이룬다고 하며, 冠의 下端에는 黃色線을 둘렀고 繩과 線사이에 七個의 黃色圓(星을 表示)을 配列하고, 佛帽冠은 鶴仙君 以上 着用하고 음字와 黃色圓은 凤靈君에 한하여 付着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불모관을 子位 이상이 쓰고 있으며, 현재 착용되고 있는 佛帽冠은 〈圖 4〉와 같다.



〈圖 4〉水雲教 佛帽冠

(수운교 총무원장 梁元胤 소장,
1991. 1 조사)

④ 天衣

天衣는 1933年에 처음으로 만들어져 鶴仙君 以上이 착용하였으나 현재는 子位 以上이 착용하며, 天上의 仙女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며 입는 옷으로

15) 水雲教 本部, 앞의 책, 第四章 道位와 冠服 第三十二條

16) 水雲教 本部, 앞의 책, 第四章 道位와 冠服 第三十二條

·하늘사람 옷'이란 뜻이며¹⁷⁾ 보수, 세탁을 아니한다.

水雲教의 天衣를 보면 神仙思想을 표현하는 飛天像의 天衣보다는 佛教의 裳裟와 비슷하다. 이는 선복이나 도복에서와 같이 그 명칭에서 道教를 상징하고 그 형태에서 佛教를 표현하려 한 것 같다.



〈圖 5〉水雲教 天衣

(수운교 종무원장 梁元胤 소장,

1991. 1 조사)

纓子가 등뒤에서 양어깨를 지나 가슴앞으로 오도록 된 것이다(〈圖 6〉 참조).



〈圖 6〉水雲教 儀禮服裝

(수운교 소장, 1991. 1 조사)

〈圖 5〉는 현재 착용하고 있는 水雲教의 天衣이다. 한장의 장방형으로 되어 있고 뒤의 중앙에는 마치 흉배와 같은 日·月 繡版이 부착되어 있고 紅色의 肩纓子가 4개 있고 七色의 보통 纓子가 前後左右 모두 28개가 달려 있으며, 이것은 둘로 접어 붙여져 있다. 또 天衣의 前後左右에 '金剛天王'이라고 쓴 繡版과 '唵'字 수판이 각각 4개씩 붙어 있다. 天衣의 衣材는 착용자任意이다. 이 天衣는 전섬유로 짠 貢綵으로 만들어져 있다.

天衣의 背後에 부착된 繡版에는 중앙을 기점으로 左右에 日月이 있고 上下로 凤이 마주보고 있으며 그 위에 다시 '天佛'·'地佛'이라는 글귀가 上下로 배치되어 수놓아져 있고 雲紋도 보인다.

天衣를 着用하는 방법은 日月 繡版있는 부분을 뒷 중심에 대고 兩어깨에 있는 긴 纓子와 진동밀을 지나온 반대편의 纓子를 가슴 앞에서 좌우로 엇갈려 묶어 준다. 佛教의 裳裟가 한쪽 어깨를 내놓고 또 다른 어깨를 감싸는 반면 水雲教의 天衣는 긴

⑤ 法帶

法帶은 天衣 위에 착용한다. 『教憲』에 “法帶의 前面部는 鶴繡, 後面部는 凤繡를 놓았으며 二尺三寸長의 纓子가 二個 달려 있다. 鶴仙君以上 착용하면 鶴仙君의 纓子는 紅色이고 凤靈君은 黃色纓子”¹⁸⁾라고 한다. 現行 의례복에서는 佛帽冠과 天衣가 子位에서부터 착용됨에 따라 法帶도 子位로부터 착용되고 있다. 그 모양은 〈圖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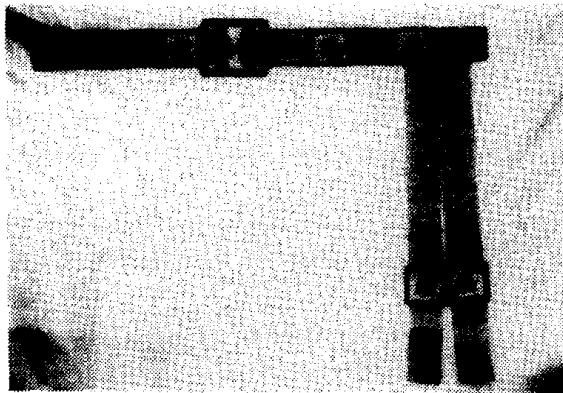
〈圖 7〉은 黃色纓子가 달려 있으므로 최고 도위인 凤靈君의 法帶이다. 이 法帶에는 중앙에 큰 繡版이 있고 그 안에 네마리의 凤이 上下左右로 마주보고 있다. 중앙의 繡版을 중심으로 좌우로 작은 繡版이 있으며, 마주보고 있는 두마리의 鶴과 음字가 교대로 번갈아 수놓아져 있고, 길게 내려진 纓子에도 각각 음字 繡版이 달려 있다.

⑥ 繡鞋子

繡鞋子는 子位 이상의 道位를 받은 者가 道冠

17) 鄭海洙 口述, 水雲教 法師院長, 1991. 4. 본인과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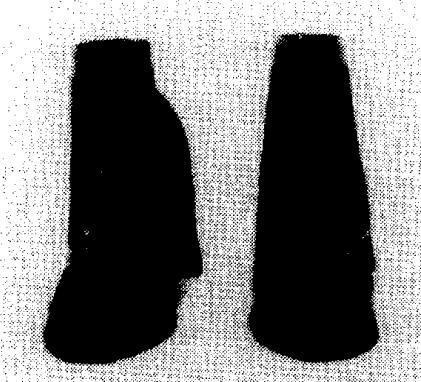
18) 水雲教 本部, 앞의 책, 第四章 道位와 冠服 第三十四條 二



〈圖 7〉水雲教 法帶

(수운교 총무원장 梁元胤 소장,
1991. 1 조사)

道服에 신으며, 남자만 신는다(圖 8). 이 繡鞋子는 종이로 內粧하고 겉은 黑色布로 만들었으며, 十字形으로 白色線을 두르고 가장자리 역시 고동색의 線을 둘러, 명칭만 다를 뿐 그 형태는 조선시대의 水靴子와 유사하다.



〈圖 8〉水雲教 繡鞋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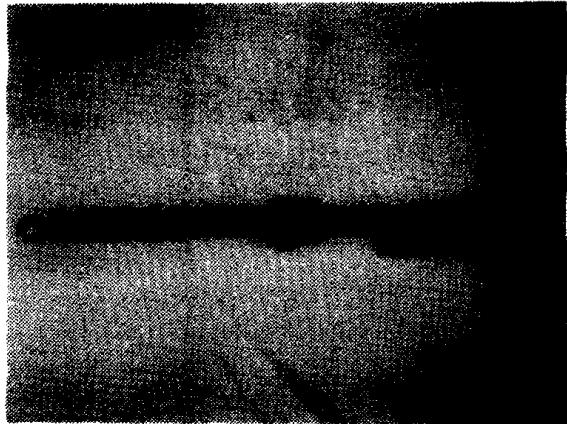
(수운교 총무원장, 梁元胤 소장,
1991. 1 조사)

⑦ 六環杖

六環杖의 携帶는 1929年부터이며, 子位·漢貞夫人以上이 道冠을 道服을 입고 휴대한다. 남자의 六環杖은 二尺三寸의 長竹에 六環이 달리며(圖 9), 女子用은 木尺 二尺一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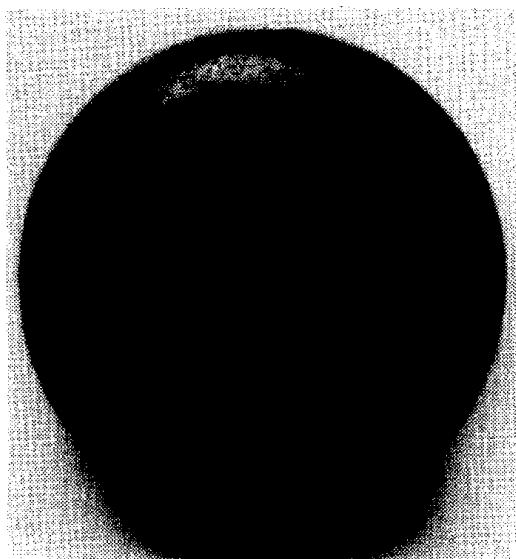
⑧ 子牌

子牌(圖 10)는 木彫의 둥근달 모양이며, ‘雲水中間天明月’이라 새기고 姓名三字와 道號子를 새기고, 子位以上 禮服의 左則前面에 다는 이름표와



〈圖 9〉水雲教 六環杖

(수운교 총무원장 梁元胤 소장, 1991. 1 조사)



〈圖 10〉水雲教 子牌

(수운교 교무부장 尹夏仁 소장, 1991. 1 조사)

같은 것이다. ‘雲水中間天明月’이란 天明月 가운데 水雲이 있다는 뜻으로 곧, 水雲을 상징한다.

⑨ 鶴票, 肩章

鶴票와 肩章 등의 表示章이 있다. 鶴票는 鶴仙君에 한하여 仙服에만 달며, 남자는 左側에 여자는 右側 앞가슴에 단다(〈圖 2〉 참조).

肩章은 紅色 바탕에 金色 실로 ‘佛天功德法師’라는 글귀를 終書로 수놓으며, 凤靈君에 한하여 道服의 어깨에 단다.

앞의 〈圖 3〉의 道服에 단 肩章은 가로 16cm, 세로 4.5cm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붉은 천에 검정 선을 두르고 위의 글이 노란색으로 수놓아져 있다. 이 말은 ‘부처님과 하늘님께 공덕을 쌓은 법사’라는

〈表 1〉水雲教의 儀禮服飾(儀禮服飾) 뜻함

뜻으로, 이 肩章을 다는 者는 부처님과 하늘님께 공덕을 쌓은 최고 법사를 의미하니, 권위와 영광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상으로 수운교 의례복식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表 1>과 같다.

<表 1>를 살펴보면 수운교의 道位는 만 15세 이상된 교인 중에서 擇選하여 昇敍하며, 종교적 인격을 완성해 가는 사다리와 같은 것으로 남자는 員에서부터 凤靈君大人까지 1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여자는 順女에서부터 鶴仙君夫人까지 5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等級의 숫자가 커질수록 道位가 높아짐을 의미하며, 道位가 높다는 것은 誠敬信으로 事人如天하여 인격완성이 잘 된 것으로 평가받게 되고 모든 資格과 待遇의 기준이 되므로, 최고 도위는 곧 종교적 인격완성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최고 도위는 모든 교인의 지향하는 바 목표이며 선망의 대상이다.

남자의 경우에 道位가 낮은 員, 尊은 黑色單層仙冠을 쓰고 黑色單線의 仙服을 입고 紅色 띠를 맨다. 員, 尊은 道冠道服, 佛帽冠, 天衣를 착용할 수 없고 기타의 구비품도 휴대할 수 없다.

道道師, 法道師, 天道師, 佛道師 등 3~6 단계에 해당하는 道師 道位는 黑色二層冠에 白黑二線의 仙服을 입고 紅色 띠를 매고, 7~10 단계에 이르는 道廣主, 法廣主, 佛廣主 등 廣主級은 黑色三層仙冠에 白紅黑三線 仙服을 착용하고 紅色 띠를 맨다. 道師, 廣主級 역시 仙冠仙服만 착용할 수 있다.

11단계인 子位는 紫色四層仙冠을 쓰고 白紅黃黑四線의 仙服을 입고 紅色 띠를 맨다.

子位는前述한 道位와는 달리 道冠道服을 착용 할 수 있다. 또한 예복좌측 앞가슴에 子牌를 달고 繡鞋子를 신고 六環杖을 휴대하나, 佛帽冠, 天衣는 착용할 수 없다.

法師와 支部長의 자격을 子位 以上으로 定하고, 子位에서부터 凤靈夫人까지의 도위를 授與할 때는 本部에 參拜하여 衣冠을 정제하고 天檀에서 奉受하는 것으로 보아 子位부터는 法에 정통하고 수행력이 뛰어나 많은 사람의 모범이 되고 대중을 교화할 수 있는 종교적 인격을 갖춘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子位 이상부터는 모든 자격과 대우가前述한 도위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나며, 儀禮

服飾에서 가장 뚜렷한 것 같다.

子位 웃 단계인 鶴仙君夫人은 仙冠仙服, 道冠道服, 佛帽冠, 天衣, 法帶, 子牌, 六環杖, 繡鞋子, 鶴票를 착용한다. 仙冠仙服은 子位와 같으며 다만, 紅색 띠 대신 황색띠를 맨다. 仙服 좌측 앞가슴에는 鶴票를 다는데 이것은 鶴仙君夫人만 달 수 있는 것으로 鶴票는 곧 鶴仙君大人을 표현하는 신분표시이다. 鶴仙君大人의 道冠道服은 子位와 같으며, 도복위에는 佛帽冠을 쓰고 紅色의 天衣에 紅色의 法帶를 착용한다.

최고 道位인 凤靈君大人이 착용하는 의례복식은 鶴仙君大人과 같다. 다만 학표 대신 肩章을 부착한다. 道服에 부착하는 이 肩章은 凤靈君大人의 佛帽冠에는 前後에 음字를 7個의 黃色 별모양이 붙어 있고, 天衣는 紅色이나 法帶에 黃色을 사용하여 鶴仙君大人과 구별하고 있다.

女子의 道位는 5단계로 구분되며, 道位가 가장 낮은 順女는 黑色單層仙冠에 黑色單線의 仙服을 입고, 和夫人은 黑色二層仙冠에 白黑二線의 仙服, 烈夫人은 黑色三層冠에 黃紅黑三線의 仙服을 입고 띠는 모두 緑色을 맨다. 順女, 和夫人의 仙服의 色線은 남자 도위의 員, 尊, 道師와 같은데 烈夫人의 色線은 同類 도위인 廣主와 다르다.

漢貞夫人은 紫色四層冠에 緑黃紅黑四線의 仙服을 입고 緑色 띠를 미며 道冠道服, 六環杖을 휴대하며, 漢貞夫人은 남자의 子位에 해당하는 도위인 子牌와 繡鞋子는 착용하지 않으며, 佛帽冠, 天衣도 착용할 수 있다.

鶴仙君夫人은 여자 최고의 도위로서 仙冠仙服, 道冠道服, 六環杖, 佛帽冠, 天衣, 法帶, 鶴票를 착용하고, 仙冠仙服, 道冠道服은 漢貞夫人과 같다.

그런데, 남자의 최고 도위에 相應하는 여자의 도위는 없고 그 보다 한 단계 낮은 鶴仙君夫人이 여자의 최고 도위인 점으로 보아, 최고의 도위인 凤靈君의 禮服은 남자에게만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의례복식에 남자우위 사상이 내지되어 있으며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관은 『教憲』에 “未婚女의 도위는 順女에 限하며 夫人の 道位는 男便의 도위를 參酌하여 超位되지 않은 限界에서 授與한다”¹⁹⁾라고 하여, 여성을 개별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남성의 테두리 속에서

19) 水雲教 本部, 앞의 책, 第四章 道位와 冠服 第二十七條

보고 있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教祖가 1822年生이고 102세 때에 수운교를 창립하여 典制를 마련하였으나, 儒教禮制의 前時代를 살아온 思考로서는 당연한 일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지만, 한편 여성 을 윗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冠服을 입힌 점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인정하고 남성과 같이 待遇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보인다.

2. 彌勒佛教의 儀禮服飾

1) 彌勒佛教의 概觀

瓶山教는 격동의 시기인 1901年에 姜一淳에 의하여 創教되었다. 瓶山은 그의 호이다. 瓶山은 그가 깨달은 새로운 이념에 의하여 모든 理念, 規範, 理法, 秩序를 改革, 修正한다는 의미는 지닌²⁰⁾ 天地公事²¹⁾의 내용 표현을 教義로 수립하여 자칭 天帝(玉皇上帝)요, 彌勒佛로서 보통 사람은 헤아리기 어려운 奇行異蹟을 행하면서一生을 살다 갔다.

瓶山死後에 瓶山을 신봉했던 徒들을 각기 教門을 열어 수십을 헤아리는 教團을 이루어²²⁾ 瓶山思想을 퍼 오고 있으며, 彌勒佛教²³⁾는 瓶山을 教祖로 봐도는 수많은 瓶山教團 中의 하나이다.

彌勒佛教를 창립한 사람은 秀山 鄭寅杓이며 1934年 1月 10日에 道理를 깨쳤다.

彌勒佛教의 교리는 종산이 행한 天地公事が 핵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天地人 三合一道이며 仙佛儒 三合一體之教에 있다.²⁴⁾

儀禮儀式을 치성이라고 부르며 朝夕으로 치성을 드린다. 주요 치성일은 순교도 위령일, 미륵불 화친일, 아미타불 선화일 등이 있다. 儀式詩에 教徒들은 道體에 따라 四位로 나뉘어 行事が 진행되며, 의례 복에는 道體를 나타내기 위한 구별이 있다.

2) 儀禮服飾의 細部的 考察

彌勒佛教의 儀禮服飾은 本教의 經典인『降化大全』²⁵⁾과 禮典인『報恩祥禮大全』²⁶⁾에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彌勒佛教의 의례복식은 교단 초기에는 正服과 念珠 뿐이었으나 이후에 仁和冠, 短珠, 胫衣, 貌扇 등이 첨가되어 착용되어 오다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 현재 貌扇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미륵불교의 의례복식은 직위나 도위의 上下 또는 남녀의 구별없이 모든 교인이 정결한 平常服 위에 仁和冠을 쓰고 正服을 입고 正服위에 胫衣를 두르며 念珠를 목에 걸고 端珠를 원손에 짚다(圖 11). 즉 미륵불교의



〈圖 11〉 彌勒佛教 儀禮服裝
(미륵불교 事務長 金炯樹)

20) 柳炳德, 『韓國新興宗教』, 시인사, 1986, 306쪽

21) 天地公事 : 종산이 성도한 후 사망할 때 까지 9년간 인간과 천지의 신령들을 널리 구하기 위하여 행한 일을 말하며 新正整理公事, 世運公事, 教運公事 등의 3대 내용이 있다.

22) 金洪喆, “韓國新宗教에 나타난 道, 佛交涉”, 『한국종교』 제8집, 323쪽

23) 洪凡草, 『법종산교사』, 법종산교 원고원, 1988, 590쪽

24) 現 本部는 전라북도 정읍군 태안면 대용리

25) 李沅璋, 『根本과 生名 자리를 찾는 지름길』, 泰光文化社, 1977, 102쪽

26) 彌勒佛教 總本部刊行 : 創教祖 秀山의 天地神明工事記中 彌紀 十五年(西紀 1949) 1月부터 彌紀 十五年(1955年) 七月十四日까지의 神道工事記를 수록한 경전

27) 彌勒佛教 總本部刊行 : 총 63항목으로 이루어진

創教祖 당시부터 행해지던 예식을 한데 봄음

儀禮服飾은 幹部와 一般信徒 구별없이 仁和冠, 正服, 帶, 背衣, 念珠, 短珠 등을 치성일에 착용하며, 幹部가 法文을 說할 때에도 착용하므로²⁶⁾ 法服이라고도 부른다.

(1) 仁和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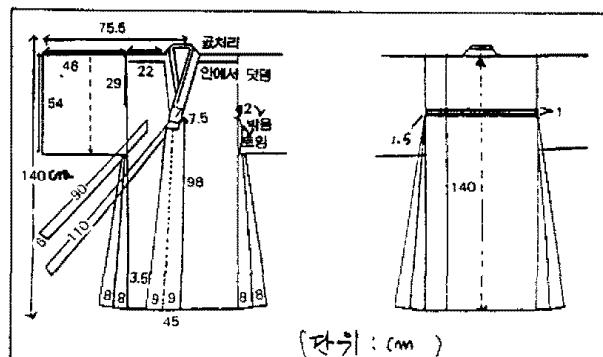
미륵불교에서 착용하는 冠을 '仁和冠'이라 한다 (<圖 11> 참조). 仁和冠의 형태는 원통형으로 위는 扁이고 12봉우리가 있어 程子冠과 비슷하다. 山봉우리가 아닌 연꽃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²⁹⁾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製作上 연꽃잎의 형태가 아닌 삼각형태로 되어 있다. 위가 터지고 연꽃형태를 형상화한 것은 앞서의 水雲教의 蓮花冠과 비슷하며, 증산교단의 여러 종교에서 이와 類似한 형태의 冠을 착용하고 있다. 이 冠은 종이로 만들어져 內冠과 外冠이 뺏뻣하게 배접되어 있으므로 중첩되어 보이지 않으나, 布로 만들었을 당시에는 內冠과 外冠이 존재하여 2중으로 중첩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冠의 색은 담청색이며 가로線은 청색이다. 冠의 아랫부분에 있는 이 가로선은 초기에는 넓었으나 지금은 1.2cm 나비로 좁아졌으며 道體에 따라 색을 달리하니 東은 青色, 西는 白色, 南은 赤色, 北은 黑色을 사용하여 四位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線이다.

(2) 正服

正服의 형태는 남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男子正服의 형태(<圖 12>)는 周衣와 비슷하며 女子正服은 圓衫과 같다.

현행 男子正服은 直領右衽의 袍로서 동그레깃³⁰⁾에 전통적인 직선배래와 소매통은 넓고 진동밑에서 배래에 이르는 線은 직선이며 진동밑에서 2cm까지 봉합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터져 있다. 소매끝은 나비 2cm 단으로 걸에서 박았으며 소매통 전체가 袖口로 되어 있다. 진동밑의 터짐과 소매통 넓이의 전체가 袖口가 된 것은, 우리의 袍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소매가 주머니 역할을 하여 무엇인가를 집어 넣게 되는데, 넣는다는 것은 욕심, 有를



<圖 12> 彌勒佛教 男子正服 제도
(미륵불교 총무 李仁源)

의미하므로 正服에서는 소매가 주머니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동밑을 트고 袖口를 넓게 하였다.³¹⁾고 한다. 또한 무가 8cm나비로 앞뒤 각각 2개씩 달려있어 일반적인 두루마기에서 무가 하나씩 붙은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모두 합하여 8개인 무는 8개를 상징하며 무는 서로 봉합되어 있고 옆이 두로 막혀 있다. 셀은 안셀과 걸셀이 모두 세로로 폭을 자르지 않고 2등분하여 안쪽에서 1cm나비로 박아 주어 모두 4셀으로 되어 있으며 東西南北 4方과 仁義禮智를 나타낸다. 뒷중심은 봉제되어 있고 진동밑 1cm에서 1.5cm나비의 가로線이 1cm 간격을 두고 2줄 가식 되어 있다. 이것은 天地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男子正服의 袍는 直領·右衽의 소매 통이 넓은 두루마기로 볼 수 있으나 소매선이 직선 배래이며 진동밑이 터져 있고 무가 좌우 앞뒤 모두 8개인 점이 오늘날의 두루마기와 다르다.

『報恩詳禮大全』에 “東方은 青色을 주장하는 고로 服色은一同이 青色으로 하고…”³²⁾하여 우리나라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五行에 의하여 青色을 입어야 한다고 하여 모두 道禮에 관계없이 男女正服은 青色 系列인 玉色을 입는다.

正服의 色에 대하여 『降化大全』에 “衣服은 色服을 장려하여야 할터이니 今後는 色服을 입고 이 자리에 와주기 바란다.… 사람은 理致를 받아서

28) 彌勒佛教 總本部, 『降化大全』, 279쪽

29) 李沅璋 口述, 彌勒佛教 大宗法師, 1990. 12. 22, 본인과 면담

30) 高福男, 앞의 책, 217쪽

31) 李沅璋 口述, 彌勒佛教 大宗法師, 1990. 12. 22, 본인과 면담

32) 彌勒佛教 總本部, 『報恩詳禮大全』, 二 仁和正服 참조

사는데 衣服은 理致의 으로 五色을 입어야 하고 文明은 반드시 衣服을 보아서 알 수가 있으니… 속히 선전하여 色服으로 致着케 하며³³⁾라고 하여, 理致에 맞게 色服입기를 권장하고 있다. 이는 五行思想에 의한 色彩觀으로 각기 자기의 四柱에 의하여 정해진 道禮에 따라 青·白·黑·赤 등의 服色을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착용되고 있는 正服의 색은 玉色이며 처음부터 淡青色인 玉色이 正服의 색으로 사용된 것 같다. 玉色은 青色類로 色感이 얇어 위로는 玉을 위시하여 아래로는 士大夫들의 도포나 두루마기색에 이르기까지 애용되었던 색이다.³⁴⁾

正服의 素材에 대한 언급은 문헌에 보이지 않으며 現行 正服은 絹과 폴리에스텔의 混紡으로 보이는 洋綢을 사용하여 훌옷으로 만들어져 있다.

③ 帶

帶는 正服위에 맨다. 『報恩祥禮大全』에 “服色은 同이 青色으로 하고 帶의 色은 각각 方位에 따라 성하니 東은 青色, 西는 白色, 南은 赤色, 北은 黑色이다”라고 하여, 帶의 색은 道體에 따라 四色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그렇게 실행되고 있다.

帶에 대해서 『降化大全』에는 언급됨이 없는 것으로 보아, 带의 色은 正服이 道體에 따라 四色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青色만의 착용이므로 带의 色으로서 道體를 나타내려 한 것으로 추측된다.

④ 胞衣

胞衣는 正服위에 착용하여 正服과 합쳐서 ‘胞衣正服’이라고도 하며, 카톨릭 예전복의 깃바(Cappa)나 佛教의 裂裟와 비슷한 두르는 형식이다.

〈圖 13〉은 現行 胞衣로 그 형태는 가로 150cm × 세로 105cm의 직사각형의 布를 세로로 반을 접어 左右 대칭이 되게 하여 모서리를 굽린 후 앞 부분을 트고 목 부의는 파서 끈을 달아 여미도록 되어 있다. 트임부분의 가장자리는 赤色의 가는 横이 가식되어 있고, 뒷중심에는 가로 17cm × 세로 41cm의 사각형안에 좌우 대칭으로 弓乙字形이 수놓아져 있으며 그 안에는 다시 ‘胞衣正服’이라는 글귀가 수놓아져



〈圖 13〉彌勒佛教의 胞衣

(미륵불교 총무 李仁源 소장,

1991. 2 조사)

있다. 이 글귀의 色은 道體에 따라 달라지며 冠의 가로선과 帶·念珠·短珠의 술장식과 함께 道體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仁和冠의 線, 正服의 帶, 念珠의 술, 短珠의 술, 胞衣正服의 글자色이 青色으로 되어 있으며, 道體가 東方임을 알 수 있다. 胞衣 뒤의 도련 부분에는 五色 술을 달고 正服의 素材와는 달리 비단으로 만들어 胞衣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고 있다.

⑤ 念珠, 短珠

『降化大全』에 보면 “大致誠이 있으니 일제히 예복도 준비하여야 하고… 염주도 장만하는데 東方三八連으로 三八珠로 하여라… 염주도 예식으로 치성때만 가지게 하고 평상시에는 문란하게 사용을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여, 염주도 의례복식으로서, 正服을 준비한 사람은 염주까지도 같이 준비하였다.³⁵⁾

彌勒佛教에서의 念珠(〈圖 11〉 참조)는 연꽃 열매로 만들어 東方을 나타내는 數인 三·八을 상징하여 38개의 주를 째어 만들어 앞중심에는 仙佛儒를 상징하는 3개의 연실을 더 째어 만들어 목에 건다. 손에는 天數地數인 一·二를 상징하는 12개의 주를 뱀 短珠를 원손에 낀다. 염주와 단주에는 수술이 달려 있으며 道體에 따라 四色을 달리 한다. 또한 『報恩祥禮大全』에는 “어머니가 주신 胞衣와 아버지

33) 彌勒佛教 總本部, 『降化大全』壬辰 一月十三日 說法記

34) 金英淑, “韓國服飾史에 나타난 傳統色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9, 198쪽

35) 彌勒佛教 總本部, 『降化大全』辛印 八月三十日 說法記, 203쪽

36) 彌勒佛教 總本部, 앞의 책, 235쪽

가 주신 正服과 三八 응한 念珠와 하늘과 땅의 수(天數地柱)에 응한 短珠는 天地父母님에게서 상서롭게 받은 것이니 자주 생각하여 잊지마라”³⁷⁾하여 短珠도 念珠와 함께 禮式品으로 되어 있다.

⑥ 貌扇

貌扇은 입과 코를 가려서 악취를 금할 목적으로 치성을 드릴 때 쓰이는 물품으로,³⁸⁾ 입마개와 같은 것이나 지금은 착용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 본 彌勒佛教의 의례복식을 정리하면 〈表 2〉와 같다.

는 만 백성을 가르쳐 깨우치는 教化主인 한검(桓儉)으로, 한임은 한울 아버님이요 한옹은 한울 스승이고 한검은 한울 임금이라고 한다.

大倧教는 弘益人間의 아념과 天父, 天孫, 天民의 주체사상을 지니며 하나뿐인 한얼님으로부터 하늘과 땅과 사람이 나왔다는 宇宙創造說과, 하늘과 땅이 같고 神과 인간이 같으므로 하늘·땅·인간의 三極을 동일하게 보는 三一哲學의 宗教觀, 사람이란 한얼님과 하나가 되는 존재 가치가 있다는 神人合一思想의 人類觀을 특징으로 한다.

〈表 2〉 彌勒佛教의 儀禮服飾

構成		內容	色	素材	비고
仁和冠	바탕	淡 青 色	베 · 마분자	모든 教人이 동일 色 사용	
	線	青 · 白 · 赤 · 黑	베 · 마분자	道禮에 따라 4色中 1色 사용	
正 服		玉 色	洋 繸	모든 教人이 동일 色 사용	
帶		青 · 白 · 赤 · 黑	洋 繸	道禮에 따라 4色中 1色 사용	
胞 衣	바탕	綠 色	貢 繸	모든 教人이 동일 色 사용	
	裙 裳	青 · 白 · 赤 · 黑	緝 絲	道禮에 따라 4色中 1色 사용	
念 珠	珠	素 材 色	蓮 實	모든 教人이 동일 色 사용	
	술	青 · 白 · 赤 · 黑	緝 絲	道禮에 따라 4色中 1色 사용	
短 珠	珠	素 材 色	蓮 實	모든 教人이 동일 色 사용	
	술	青 · 白 · 赤 · 黑	緝 絲	道禮에 따라 4色中 1色 사용	
貌 扇		白 色	綿	현재 사용하지 않음	

3. 大倧教의 儀禮服飾

1) 大倧教의 概觀

大倧教³⁹⁾는 弘巖 羅喆에 의하여 1909년에 重光되었다.

大倧教는 古朝鮮이래의 우리의 固有信仰인 ‘天神教’를 다시 빛나게 한 宗教라는 의미에서 教의 創教라 하지 않고 重光이라 한다.

信仰의 對象은 세검 한몸인 한배검(三神一體의 天教神)이니 곧 國祖 檀君이다. 세검 한몸인 한배검은 한울에 계셔서는 우주를 내고 만물을 창조하는 造化主인 한옹(桓因)⁴⁰⁾이요, 인간세상에 내려와서

대倧教의 儀禮 儀式은 고유의 종교라는 입장에서 되도록 고유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의 교단으로서의 현대적인 감각에 맞추어 가야한다는 견지에서四大慶節에는 檀儀式으로 祭天行事를 奉行하여 고유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大倧教의 의식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 고유 의식을 접할 수가 있다.

2) 儀禮服飾의 細部的 考察

대倧教는 백두산 및 강화 미니산에서 天祭를 올리고 四大慶節이 제정되어 儀禮服飾이 뒤따르게 되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온갖 수난을 겪는 가운데 服飾 및 서적이 불태워져, 해방 후 환국해서

37) 彌勒佛教 總本部, 『報恩常禮大全』「胞衣正服」禮文

38) 彌勒佛教 總本部, 앞의 책, 仁和正服 참조

39) 現 本部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8-78

40) 「桓」의 본음을 「한」이요, 「因」의 본음을 임이다.

41) 한글문화재 보호협회, 한국종교 의례복식전, 대종교 의례복식, 1990. 12. 3-12. 12

원로들의 口述과 단국대학교 石窟善의 자문을 받아 儀禮服飾이 다시 복원되었다.⁴¹⁾⁴²⁾ 이 의례복의 모양은 고구려 때의 복식 형태를 본따 만든 것으로 우리 고유의 옛 두루마기式이며 禮를 가장 정성껏 드리는 祭天行事 時에는 반드시 착용하여 군본을 갚는儀式을 시행한다.

『三一神話』 「미릿말」에 “우리 임금께서는 본디 한울이 내신 이로 한얼임의 내려주신 계통을 이어 나라 터전을 정하시고 禮服을 입으시고서 한울의 말씀이 적힌 거룩한 책궤를 받들어 비로소 친히 보배로운 예찬을 염으시니”⁴³⁾라고 하여 ‘衣’의 儀禮性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三一神話 읽는 법』에서 “信徒들은 반드시 神話를 읽되 먼저 깨끗한 방을 가려 眞理圖를 벽에 걸고 세수하고 몸을 깨끗이 하며 온갖을 바로 하고”⁴⁴⁾라고 했으며, 여기에서 역시 옷깃을 바로한다는 것은 예의를 갖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처럼 ‘衣’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 실용성의 차원을 넘어 儀禮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시 한 바, 대종교에서도 의례복을 禮의 기본으로 제천행사 時에 착용하여, ‘祭天儀式服’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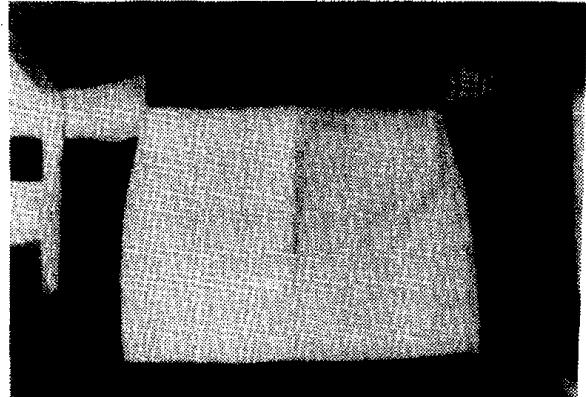
그리므로 大倧教 의례복식은 모든 교인들이 착용하는 것은 아니고 제천행사를 거행하는 主祀, 守護, 禮員만이 착용하며, 제천의식복에는 主祀服, 守護服, 禮員服 등이 있다.

① 主祀服

主祀란 祭天行事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 祭主를 말하며,⁴⁵⁾ 이 祭主가 착용하는 의례복식을 主祀服이라고 하여 教人중에 祭主 한 명만이 착용한다. 大倧教를 대표하는 종전교가 祭主가 되니 主祀服은 종전교만이 입을 수 있다. 主祀服은 主祀帽와 主祀服, 허리띠, 主祀의 靴로 구성된다.

가. 主祀帽

主祀帽는 內冠과 外冠으로 되며, 內冠은 검정색이고 外冠은 黃色이다. 그러나 재질이 삼베이기 때문에 外冠의 黃色은 황금색 쪽 보다는 삼베 그대로의 색을 사용하고 있다. 冠의 아래부분의 襪과 턱끈은 검정색이다(圖 14).



〈圖 14〉 大倧教 主祀帽

(大倧教 소장, 1991. 2 조사)

나. 主祀服

主祀服의 형태는 〈圖 15〉와 같다. 흰색바탕에 直領右衽으로 領·袖口·裾에 藍色襪을 둘렀다. 소매통은 보통 隻이이며 배래는 직선이다. 셀은 없으며 무는 前後左右 모두 4쪽이다. 전체적인 느낌은 上古時代의 고유복식인 褙나 袍의 분위기이다.



〈圖 15〉 大倧教 主祀服

(大倧教 소장, 1991. 2 조사)

다. 허리띠

허리띠는 主祀, 守護, 禮員服에 모두 착용하며

42) 姜壽元 口述, 大倧教 倧經刊行委任長, 1991. 1, 본인과 면담

43) 大倧教 總本社, 『三一神話』「미릿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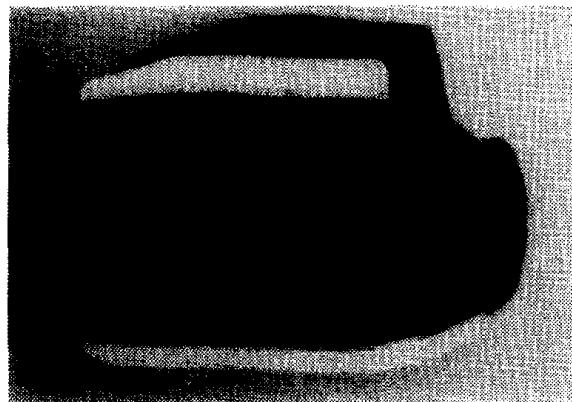
44) 大倧教 總本社, 앞의 책, 「三一神話 읽는 법」, 46쪽

45) 大倧教 總本社, 앞의 책, 395쪽

허리띠의 색은 옷의 横과 동일한 색을 사용한다.
主祀의 허리띠는 나비 7.5cm, 길이 226cm로 主祀服, 守護服, 禮員服에 있어서 동일하다.

라. 靴

靴는 主祀, 守護, 禮員 모두가 착용하며, 그 형태는 〈圖 16〉과 같다. 靴의 운두 높이가 20.5cm이며 검정포로 만든다. 운두의 가장자리는 横을 加했는데 主祀靴의 선은 灰色이다.



〈圖 16〉 大倧教 主祀靴
(大倧教 소장, 1991. 2 조사)

② 守護服

守護服은 祭主의 양쪽에 서서 主祀를 도우며, 祭物을 제 위치에 놓고 거두는데 수호·조력하는 사람이 입는 옷으로 2명이 착용한다. 主祀服과 같이 帽子·服·허리띠·靴로 구성된다.

守護服의 모자는 남자 禮員帽를 쓴다. 守護服의 형태는 主祀服과 같으며, 服色 역시 백색이나 도련의 선과 띠의 色이 검정색이다.

③ 禮員服

典儀⁴⁶⁾, 秦由⁴⁷⁾, 願禱⁴⁸⁾, 秦樂⁴⁹⁾, 導式⁵⁰⁾ 등 제사를 봉행하는 禮員이 착용하는 옷인데 主祀, 守護가 남자로만 구성되는데 반해 예원은 제천의식의 역할에 따라 男女로 구분되므로 그 예원복의 형태에 있어서도 남녀가 다르다. 그 구성은 主祀, 守護와

같이 帽子·服·허리띠·靴로 구성된다.

가. 禮員帽

禮員帽의 형태는 남녀가 다르며, 男子禮員의 모자는 검정색으로(〈圖 17〉 참조). 禮員帽子는 主祀帽에서 外冠부분을 제거시킨 형태로 帽頂이 둑글다.



〈圖 17〉 大倧教 儀禮服裝
(1990. 10 조사)

여자 예원모는 男子 禮員帽가 上古時代의 기본 冠帽의 형태인 절풀이나 白樺帽를 본 뜻 것에 비하여 女子 禮員帽는 족두리를 쓰고 있다.

나. 禮員服

남자 예원복의 형태는 主祀, 守護服과 같으며 선과 띠의 색은 紫朱色이다.

女子 禮員服의 領은 直領이며 右衽의 袍이며, 남자 예원복과 달리 領과 襟에 선이 있어 삼국시대의 여성의 袍와 그 느낌이 비슷하다. 하지만 袖口와 裙에는 선이 없고 소매통은 50cm로 廣袖이며 남자 예복의 소매통보다 넓다. 또한 남자 예복의 소매배래가 직선인데 비하여 소매끝을 약간 굽혀주어 朝鮮時代의 두리소매처럼 처리하고 前後左右에는 각각 1개씩의 무가 달려 있어 女子 禮員服의 형태는 上古時代의 袍의 형태에서 그 이후의 여러 袍의 형태가 혼용된 것으로 남자의 예복에 비하여 美化

46) 典儀: 선儀禮式을 주도하는 이로써 도식이 역기(선의식을 거행하는 순서)를 읽어 예원을 부르면 음례로써 11 예원을 인도하는 이

47) 秦由: 主祀 원편에 나아가 끓어 앉아서 주유문을 봉독하는 예원이다.

48) 願禱: 祈禱를 드리는 예원

49) 秦樂: 노래를 치도하는 예원

50) 導式: 홀기를 읽어 나가면서 예원과 제사에 참석한 사람을 인도하는 예원

시킨 것 같다.

다. 허리띠

남자 예원복의 허리띠는 주사복의 허리띠와 같다. 여자의 허리띠는 男子禮服의 띠보다 좀더 길고 폭도 넓다. 허리띠의 中央에는 圓方角을 상징하는 大倧教의 教旗 마크를 부착하며 여자 허리띠의 색은 白色이다.

라. 靴

男子禮員의 靴는 主祀의 靴와 그 형태가 같으며, 다만 赤色의 선을 加하였다. 女子禮員은 朝高무 신을 신는다.

이상에서 大倧教 儀禮服飾에 대하여 서술한 바를 정리하면 <表 3>과 같다.

4. 圓佛教의 儀禮服飾

1) 圓佛教의 概觀

圓佛教⁵¹⁾는 少太山 朴重彬에 의해 1916年에 創教되었으며 少太山은 一圓의 眞理를 크게 깨친 聖者라는 뜻⁵²⁾에서 圓佛教에서는 흔히 '大宗師'라고 부른다.

圓佛教의 教理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一圓相의 眞理를 信仰의 對象과 修行의 標本으로 삼고 있는 점이다. 一圓相(○)은 一圓의 眞理를 ○으로 상징한 것으로서 宇宙萬有의 本源이며, 諸佛諸聖의 心印이며, 一切衆生의 本性이니⁵³⁾ 哲學的 眞理와 宗教的心性이고, 倫理的 實踐規範⁵⁴⁾이라고 한다. 일원상의 內譯을 말하자면 四恩이요⁵⁵⁾, 四恩은 곧 天地

<表 3> 大倧教 儀禮服飾

種類	性別	內容		色		素材			비고
		構成		김	안	감	김 감	안 감	
主 祀 服	男	帽	外 帽	黃		黑	紵緋		主祀 1人만 착용
			內 帽	黑	黑		貢緞	熟庫紗	
		服		白	白	青	貢緞	貢緞	
			帶	青	青		貢緞	貢緞	
		靴		黑	黑	灰	皮革	皮革	
			靴	黑	黑	赤	皮革	皮革	
守 護 服	男	帽		黑	黑	黑	貢緞	熟庫紗	貢緞
		服		白	白	黑	貢緞	貢緞	貢緞
		帶		黑	黑		貢緞	貢緞	
		靴		黑	黑	赤	皮革	皮革	皮革
禮 員 服	男	帽		黑	黑	黑	貢緞	熟庫紗	貢緞
		服		白	白	紫朱	貢緞	熟庫紗	貢緞
		帶		紫	紫		貢緞	貢緞	
		靴		黑	黑	赤	皮革	皮革	皮革
	女	帽		白	白		貢緞	貢緞	禮員 6人만 착용
		服		白	白	白	貢緞	貢緞	
		帶		白	白	白	貢緞	貢緞	
		신		白	白		正孚	正孚	

51) 現 本部는 전라북도 아리시 신용동 344-2

52) 손정운, 『원불교 용어 사전』, 원광사, 1980, 113쪽

53) 圓佛教正化社, 『圓佛教 教典』, 「一圓相의 眞理」

54) 李乙浩, “一圓相의 象徵的 理解”, 『한국철학종교사상사』, 원광대학교 종교분야연구소, 1990, 1112쪽

55) 圓佛教正化社, 『圓佛教全書』, 「大宗經」教義品 4

恩, 父母恩, 同胞恩, 法律恩으로 實踐的 信仰對象이며 罪福因果의 실질적 主宰者로서⁵⁶⁾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이니.⁵⁷⁾ 四恩은 곧 森羅萬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원불교는 四恩의 思惠를 깨달아 真理의 宗教의 信仰과 事實的 道德의 訓練으로써 恩惠에 보답하는 生活을 하자는 宗教이다.

圓佛教의 의례는 禮法이 사회나 생활에서 隔離되지 않고 그 禮法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발전되고 생활이 윤택해져야 한다⁵⁸⁾는 社會化理念에서 禮法制定이 출발하였으므로, 본래의 목적을 잘 과악하여 素分정신이 어긋나지 않도록 전리성에 근거하되 간소하게 행함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예법의 기본 정신은 衣制에도 당연히 반영되어 의례복식은 대체로 간소하다.

2) 圓佛教의 儀禮服飾

『禮典』에 “教服”은 상주 도량이나 모든 法要 행사에 威儀를 갖추는 교단적 예복으로서 教服과 法絡 두 件이 있나니, 평상 행사에는 교복만을 착용하고, 특별 행사에는 教服이 法絡을 加하여 착용할 것이요”⁵⁹⁾라고 했으며, 또 『圓佛教憲規』에서 “教服과 法絡은 教徒로서 教團의 威儀를 갖추기 위하여 착용한다”⁶⁰⁾하여, 教團의 威儀를 위하여 예복을 입는다는 禮服의 착용목적을 밝히고 있다. 禮服에는 教服과 法絡이 있으며, 教服은 小禮 時에 法絡은 大禮 時에 착용하는 예복임을 알 수 있다.

教服과 法絡을 착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家禮나 教禮 등의 儀式이나 法會를 주관할 때, 教團의 重要會議의 議事를 진행할 때, 首位團員으로써 首位團會에 참석할 때, 教團의 4祝 2齋에 참석할 때, 教團의 特別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석할 때, 기타 教徒로서 教團의 威儀를 갖추어야 할 때 착용한다.⁶¹⁾

① 教服

圓佛教의 教服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教役者의 복장을 말하기 때문에 教務服이라고도 하며, 男女 教務⁶²⁾의 教服이 있다.

教服은 冬服과 夏服으로 구분하여 冬服은 每年 10月 1日부터 다음해 5月 14일까지 착용하며 夏服은 每年 5月 15일부터 9月 30일까지 착용하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端午와 秋夕을 기점으로 하여 夏服과 冬服의 착용 기간을 정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맥락과 상통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가. 男子 教服

圓佛教 教役者 教服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文獻에 의하면 圓紀 13年(1928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月末通信』第九號에 보면 “經濟節約을 하기 위하여 本會 專務出身實行團에 限하야는 衣服 및 道具를 價格으로 制限하고 染色까지라도 一率의 으로 制定하면 좋을 줄 믿습니다”⁶³⁾라는 李東安의 意見提出이 있어 卽席採用키로 가결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 意見提出의 내용은 검소질박한 생활로 경제적 낭비를 막고 사치풍토를 예방하자는 것이며, 가장 염가의 것을 택하여 옷감의 종류와 색상 등을 일률적으로 제정을 하여 그 규칙에 탈선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이 의견은 남자에 관한 衣服, 道具부터 실험한 후 여자에 관한 것까지 일률제정키로 받아들여져 教務 제복으로서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圓佛教 男子 教務 服裝에 대한 정식 규정은 아직 까지 찾아 볼 수 없고 지금까지 대개 韓服과 洋服을 혼용해 왔다. 韓服은 회색·미색·흰색 등이 사용되었으며 洋服은 검정·ognac·회색 등이 와이셔츠는 흰색이며 넥타이는 검정으로 통용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⁶⁴⁾

56) 李鉉澤, “圓佛教 恩思想”, 『韓國近代宗教思想史』, 崇山 朴吉眞 博士 古稀 紀念,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4, 1 116쪽

57) 柳炳德, 『圓佛教와 韓國 社會』, 원광대학교 출판국, 1977, 128쪽

58) 韓鐘萬, “禮法의 現代化”, 『圓佛教學概論』, 원광대학교 출판국, 1978, 329쪽

59) 圓佛教 禮典, 教禮編 第13장 教儀 第3절 教服

60) 원불교 현규 제2편 2 教儀 교복과 법락에 관한 규정 제2조

61) 『圓佛教憲規』 제5조

62) 教務 : 圓佛教 교역자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교화의 사명을 띠고 교당에 파견된 교역자를 뜻하기도 함

63) 圓佛教正化社, 『圓佛教教故叢刊』第一卷 「月末通信」第九號, 圓紀 53年, 73쪽

64) 김인강, “원불교 남자교무 복장에 대하여”, 제10차 교화연구 발표회 발표 초록, 교화연구소, 원기75년

다시 말해서 男子 教務 服裝은 규정에 의하기 보다는 관례에 따른 것으로써 그 시대의 平常服이 威儀를 갖추면서 관습화되어 禮服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時代服의 禮服化는 카톨릭교나 佛教에서도 볼 수 있어 宗教의 체제 정비가 미약한 초기 단계에서는 대체로 복장은 그 시대와 사회의 현행 복장을 착용하기 마련이나 체제 정비가 확립되면 자연 의례적인 면에 치중하게 되고 宗教의 位相을 위하여 기본 복장에 여러가지 복식이 추가되면서 通常服이 점차로 그 宗教를 상징하는 禮服으로 정착되기도 한다. 어느 현상이 정착화 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변화를 겪듯이 圓佛教 의례복의 男子 教務 服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서서히 연구 겸토와 조심스럽게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착용되고 있는 男子 教服은 洋服에 와이셔츠와 넥타이 차림으로 우리 사회에서 착용되고 있는 通常服이다. 圓佛教의 教理와 制度가 時代化·生活化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점과 일맥 상통하고 있다. 검정 양복에 흰 와이셔츠, 검정 넥타이는喪服을 연상시키나 검정색과 흰색의 조화는 禮義·高尚함·孤高함을 유팔시키기도 하여 禮服으로서의 端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나. 女子 教服

圓佛教 女子 教服은 女子 教務 대다수가 貞女⁶⁵⁾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貞女服'이라고도 부른다.

圓佛教 女子 教服 역시 남자의 복장과 마찬가지로 李動安의 意見提出을 계기로 하여 두 달 후에 朱共珠에 의하여 女子衣服制定에 대한 意見提出이 있었다. 意見提出의 내용은 남자의 의복은 布類와 染色과 價格까지도 제정하여 經濟上 절약을 하니 여자도 남자와 같이 회원인 이상 남자와 다를바 없이 일률적으로 의복을 제정하자는 의견이다. 이 의견에서는 가격을 제정하는 것보다 布質만 정하기를 건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오래 입지 못하면 오히려 실용상 손해이므로 가격이 좀 비싸도 틈틈하고 長久한 것을 택하여야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점을 들고, 그 예로서 細累를 들고 있으며 衣服의 品名과 입는 季節·材質·色相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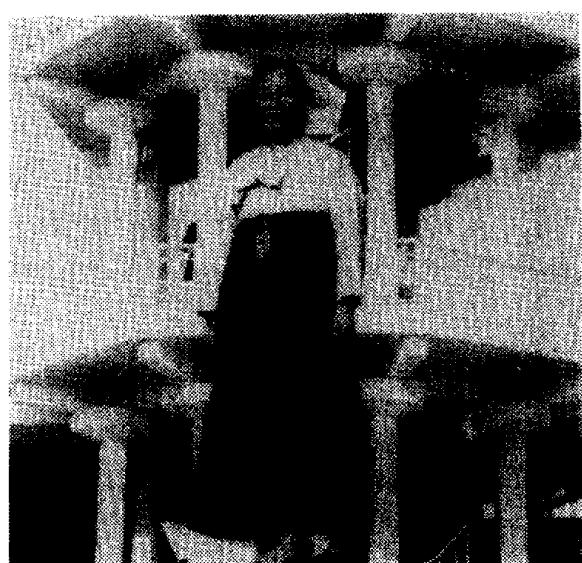
명시되어 있다.

朱共珠의 女子 服裝에 대한 의견제출 이후 시대에 맞고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품목의 변화는 있었지만 白黑 색상의 선호 현상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圓紀 40年(1955年)에 貞女들의 발의에 의하여 團體服을 입기로 결의함에 따라 冬服에는 검정저고리·차마, 夏服에는 검정치마·흰 저고리에 고름없이 단추를 사용하여 착용하게 된 후, 이 복장은 教役者 제복에 대한 教團의 성격 규명이 없이 圓佛教 女子 教役者の 제복으로 확산되고 또 그렇게 인식되어 사회적으로는 圓佛教의 상징이 되고 있다.⁶⁶⁾

이처럼 경제적 절약을 위하고 奢侈를 막기위하여 일률적으로 착용하기 시작한 白·黑·灰 3色의 저고리·차마 형태의 복장은 그대로 계속되어 圓佛教 女子 教役者の 제복처럼 되고, 이어 貞女들의 정식 제복이 되었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자연스럽게 여자 교역자의 제복임과 동시에 예복으로 정착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재질과 형태에 약간의 변화를 가미하면서 현행복장으로 유지되고 있다.

〈圖 18〉은 현행 착용되고 있는 女子 教務 服裝이다. 쪽진머리를 하고 흰 저고리·검정치마를 입고 검정 구두를 신고 있다. 現行 女子 教服은 冬服에는



〈圖 18〉 圓佛教 女子 教務 服裝
(1991. 12 촬영)

65) 貞女 : 전무·출신으로써 일생을 결혼하지 않고 교단에 봉직하는 여자 교역자

66) 조학심, 여자 교무 복장에 대하여, 「교역자 복장에 관한 연구」 발표 초록, 4쪽

검정저고리·치마를 입고, 春秋服에는 회색저고리·검정치마, 여름에는 흰색저고리·검정치마를 착용하여, 최초의 의전제출안에 의해 사용된 색상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저고리의 형태는 통상 그대로인데 다만 고름의 길이가 요즘 유행하는 길이에 비하여 짧으며, 이는 貞女들의 단체복 제정 시에 고름대신 단추를 사용하여 간편화를 추구한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의 변화를 시도한 것 같다. 치마의 형태는 풀치마가 아닌 통치마를 착용하고 있으며 그 길이는 발목과 종아리 사이 정도이다. 머리의 형에 있어서도 쪽진 머리형태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별로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비녀대신 편을 사용하여 쪽을 만든다. 現行 圓佛教 女子 教服의 전체적인 느낌은 1920年代의 훈저고리 짧은 통치마의 女學生⁶⁷⁾, 또는 新女性의 복장을 보는 것 같다.

② 法絡

法絡이란 法服의 ‘法’字와 絡子의 ‘絡’이 합쳐 이루어진 말로서, 法服과 絡子를 일컫는다. 그러나 圓佛教에서는 通常 法絡은 絡子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法絡은 大禮服의 성격을 지니며, 教務들은 教服 위에 法絡을 착용하며 그외의 사람들은 平常服 위에 착용한다.

현행 法絡은 創教祖 당시와는 형태상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보인다. 창립 초기에는 教祖를 비롯한 事務出身의 法服이 제정되지 않고 通常 禮服인 周衣를 禮服으로 착용하였다.

현재의 法絡은 圓紀 73年(1988年)에 정식으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冬服에는 灰色의 團領을 입고 夏服에는 흰색 團領을 입으며, 그 위에 絡子를 두른다.

〈圖 19〉는 法絡을 착용한 現 宗法師의 儀禮服裝이다. 한복을 착용하고 그 위에 法服을 걸고 왼손에는 염주를 끼고 있다. 現行 法服의 형태는 남녀 구별 없으며, 團領에 앞 중심에서 우측으로 여미며 幾袖에 직선배래이다. 셋은 좌우 하나씩 두개가 있으며 무는 前後左右 4개이며 裙로 부터 약 26.5cm올라온 부분까지 옆이 트여있고 진동밀 소매부



〈圖 19〉 圓佛教 儀禮服裝

(大山 金大舉 宗法師, 하나의 세계)

분도 트여 있다.

圓佛教의 絡子의 형태는 曹溪宗의 五條袈裟⁶⁸⁾와 비슷하며, 圓佛教의 絡子에는 袈裟의 특징인 布를 논두렁 모양으로 뛰매 붙인 條는 나타나지 않고 장방형의 사각형을 목에 걸도록 양끝이 연결되어 있고 중앙에는 圓佛教의 상징인 一圓相이 부착되어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圓佛教 禮法은 변함이 없지만 활용方法은 항상 새로워야 한다⁶⁹⁾는 예법실천의 기본정신을 말해주듯, 禮服인 法絡은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表 4〉와 같다.

III. 結論

본研究는 19C 말엽부터 創教되기 시작하여 近代宗教思想이라는 큰 맥락을 형성한 韓國 新宗教의 儀禮服飾에 대하여 의례복식의 種類 및 그의 形態, 色, 素材 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 보았으며研究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67) 朴京子, 「韓國服飾論攷」, 신구문화사, 1983, 26쪽

68) 安明淑, “袈裟의 衍衣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59쪽

69) 韓鏡萬, 앞의 책, 329쪽

〈表 4〉 圓佛教의 儀禮服飾

種類	性別	構成	內容		着用者	備考
			夏服	冬服		
法 絡	男女 共用	法 服	白色	灰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專務出身 • 在家敎徒로서 法動을 받은 者 • 俗계경사 이성인 者 • 在家敎務사직을 인증받은 者 • 宗法師의 特認이 있는 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法絡은 教服위에 着용하며 저고리 바지 위에 착용하기도 함
		絡 子	地 紋	黃土色 黃 色		
敎 服	男	양 복	灰色	黑色	男子敎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고리 바지를 착용하기도 함
		와이셔츠	白色	白色		
		베타이	黑色	黑色		
	女	저고리	白色	黑色	女子敎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가을에는 화색 저고리 착용 • 신은 대체로 검정 구두 착용
		치마	黑色	黑色		

첫째, 水雲敎의 의례복식은 教憲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그 종류에는 仙冠仙服, 道冠道服, 佛帽冠, 天衣, 子牌, 六環杖, 法帶, 鶴票, 肩章 등이 있으나 道冠은 現行 의례복식으로 착용되지 않고 있으며 子牌도 착용자가 점차 적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의례복식의 형태에 있어서는 上古時代의 기본 복식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仙冠, 道冠은 程子冠과 蓮花冠을 본따 만들었고 仙服은 道教의 鶴裳衣, 道服은 儒教의 團領, 天衣는 佛教의 裳裟를 본따 儒教, 佛教, 道教服飾의 특징을 受用하여 만들었다. 의례복식에 사용된 色은 黑, 紫, 灰, 紫黃, 紅, 白, 黃, 綠, 盡 등 9色으로 陰陽五行思想에 기반을 둔 색채사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水雲敎에서는 黃色을 가장 尊者의 색으로 보고 있다. 素材는 制度花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彌勒佛教의 의례복식 構成은 仁和冠, 正服, 背衣, 帶, 貌扇, 念珠, 短珠 등이 制度化 되어 있으나, 貌扇은 현재 착용되지 않고 있었다. 의례복식의 形態는 水雲敎에서처럼 우리의 기본복식에 霹教, 佛教, 道教를 상징하는 형태를 절충시키고 있다. 의례복식에 사용된 色은 주로 玉色, 綠色 등 青色系이며 白, 黑, 赤色도 표시색으로 사용되어 4色이 권장되고 있어 彌勒佛教에서의 색채사용도 水雲敎에와 같이 陰陽五行的 思考方式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黃色은 중앙의 색으로 인식되어

의례복식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青色이 가장 選好되고 있었다. 素材는 着用者 任意이며, 대부분 양단을 사용한 훌옷이며 背衣는 공단을 사용하고 있었다.

셋째, 大綜敎의 의례복식은 祭天儀式을 主管하는 者만이 착용하는 제천의식복으로 종류에는 主祀服, 守護服, 禮員服, 主祀帽, 禮員帽, 허리띠, 靴 등이 있다. 의례복식의 형태에 있어서는 上古時代의 우리의 기본 복식을 본따 만들었고, 의례복식에는 白色을 주로 사용하고 藍(青), 黑, 紫朱, 赤, 黃, 灰色이 장식으로 이용되어 白色選好를 볼 수 있으나 藍(青)色이 가장 上位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素材에 있어서는 禮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안팎을 모두 貢綵이나 紗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만들었다.

넷째, 圓佛教의 의례복식은 教服과 法服으로 구분되며 教服은 小禮服으로 教役者에 限하여 착용하며 法絡은 大禮服으로 教團의 特認이 있는 者가 착용 할 수 있다. 의례복식의 形態는 男子敎服은 通常服인 洋服形態이며 女子敎服은 저고리에 통치마로 우리의 韓服形態이고, 法絡은 團領에 絡子形態이다. 의례복식에 사용된 색은 주로 白, 黑, 灰色이나, 宇宙萬有의 本源을 상징하는 一圓相마크에는 黃色을 사용하였다.

이상 한국 산종교의 의례복식에 대하여 考察하였다. 新宗教 의례복식에는 그들의 宗教思想이 服飾의 形態나 色, 素材 등을 통하여 의례복식에 具顯되

어의례복식 자체가宗教理念을 함축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즉新宗教의 의례복식은 곧 우주의 원리를 표현한 理致를 복식에다 표현하고 있었으며, 의례복식을 착용한다는 것은天地의 이치를 내몸에 보시는 것이 되니, 그 이치를 본받아道를 이루고자 함이며 또大道를縱天地의 운혜에 깊이 감사하며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의 전달이기도 한 恩惠의 복식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本論文은 韓國 新宗教의 의례복식 研究에 대한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하며, 보다 폭넓은 우리의近代精神文化를 이해하기 위해서는近代思想을 담고 있는新宗教 의례복식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西歐化의 물결로 인하여 차츰 착용이 적어지가고 있는 우리의 옷을 의례복식으로 착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신종교 의례복식은 우리옷의傳承, 保全이라는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6
 金東旭, 增補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3.
 金洪喆, 新興宗教探訪, 圓光 11, 이라, 圓光社, 1987.
 金洪喆, 韓國新宗教思想의 研究, 서울, 集文堂, 1989.
 柳炳德, 韓國佛教與社會, 원광대학교 출판국, 1977.
 柳炳德, 韓國新興宗教, 서울, 시인사, 1986.
 朴容厚, 韓國 新興類似宗教 實態家調查研究報告書, 1970.
 朴昌善, 降化大全, 전북 정읍, 1955.
 朴昌善, 報恩祥禮大全 전북 정읍, 1955
 朴京子, 한복복식논고, 서울, 신구문화사, 1983.
 孫正允, 원불교 용어사전, 이리, 원불교출판사, 1980.
 水雲教 本部, 水雲教要覽, 1988.
 원불교 정화사, 圓佛教 禮典
 원불교 정화사, 圓佛教 全書
 원불교 정화사, 月末通信 第九號, 圓佛教教叢刊, 圓紀 53年.

원불교 정화사, 月末通信 第十一號, 圓佛教教叢刊, 圓紀 53年.

李沅璋, 根本과 生命자리를 찾는 지름길, 正音, 泰光文化社, 1977.

한국문화재 보호협회, 한국종교의례복식전, 1990
 韓鐘萬, 圓佛教學 概論, 원광대학교 출판국, 1978
 洪凡草, 佛中華敎, 佛中華敎 研究院, 1988.

金英淑, “韓國服飾史에 나타난 傳統色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김인강, “원불교 남자교무복장에 대하여”, 교역자복장에 관한 연구 발표초록, 원불교 교화부 교화연구소, 1989.

金洪喆, “韓國 新宗教에 나타난 道·佛交涉”, 한국종교, 제8집.

安明淑, “袈裟의 衍衣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柳炳德,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종교학회, 1985.

李乙浩, “一圓相의 象徵的 理解”, 한국철학종교사상사,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0.

李鉉澤, “圓佛教 恩思想”, 韓國近代宗教思想史, 崇山 朴吉眞 博士 古稀 紀念,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4.

任榮子, “한국불교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미술학회지, 1980.

任榮子, “韓國 宗教服飾에 關한 研究” – 불교와 도교복식을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조학심, “여자교무 복장에 대하여”, 교역자복장에 관한 연구 발표 초록, 원불교 교화부 교화연구소, 1989.

ABSTRACT

A Study on the Ritual Dress of Korean New Religions

Im, Sang-Im
 Department of Clothing
 Won-Kwang University

This thesis researched the ritual dress of Korean new religions such as Suungyo(水雲敎), Mirub-

ulgyo (彌勒佛教), Taejonggyo(大倧教) and Won Buddhism(圓佛教). According to kind, color, cloth and shape this thesis analyzed the ritual dress of them on the basis of its literatures.

1. The results of the ritual dress of them through its literatures are as follows:

1. In case of Suungyo(水雲教), there are Son-gwansonbok(仙冠仙服), Togwandobok(道寬道服), Pulmogwan(佛帽冠), Ch'onui(天衣), Chap'ae(子牌), Yukhwangjang(六環杖), Suhyeja(繡鞋子), Pobdae(法帶), Hakp'yo(鶴票) and Kyonjang(肩章) in its kind. In its color there are Huk(黑), Cha(紫), Hoe(灰), Chahwang(紫黃), Hong(紅), Paek(白), Hwang(黃), Rok(綠), and Nam(藍). Chemical fiber with one layer is used in its cloth. Its shape is made by a comprise between the feature of Korean dress, chuui(周衣) and that of the existing dress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2. In case of Mirukbulgyo(彌勒佛教), Inhwagwan(仁化冠), Chongbok(正服), P'oui(胞衣), Tae(帶), Moson(貌扇), Yomju(念珠) and Tanju(短珠) are systematized in its kind. In its color there are Paek, Huk, ch'ong(青), Chok, Ok(玉) and

Rok(綠), Kongdan(貢綵) and chernical fiber with one layer are used in its cloth. Its shape has a symbolic form of Yu'Pul and Son based upon Korean dress, Chuui. In its symbol Inhwagwan symbolizes Confucianism and Chongbok Taoism and P'oui Buddhism.

3. In case of Taejonggyo(大倧教), there are Chusabok(主祀服), Suhobok(守護服), Yewonbok(禮貢服), Chusamo(主祀帽), Yewonmo(走貢帽), Tae(帶) and Hwa(靴) in its kind. In its color there are Paek(main one), Nam, Huk, Chaju, Chok, Hwang and Hoe. Kongdan with both sides is elaborately used in its cloth. Its shape thken from Korean dress means the succession of the national spirit of the white-clad folk.

4. In case of Won Buddhism, there are Kyobok(教服) and Pobrak(法絡) in its kind. In its color there are Paek, Huk and Hoe - especially, both Hwangt'o(黃土) and Hwang are used in Pobrak. Anyone can use cloth at his will. In its shape Kyobok for man is Yangbok and Kyobok for woman is Tongch'ima and Chogori, a style of Korean dress. Pobrak is a form of Tanryong(團領) worm with Rakja(絡子).